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 학원가 수강생 줄어 '울상'

광주·전남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낮은 연봉·처우·조직문화 등이 원인 학원·식당·카페·복사집 등 매출 급감 "현장 강의 수강생 10분의 1로 줄어"

낮은 연봉과 처우,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공무원 직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지방생이 크게 줄면서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과 인근 상가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아 폐업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오전 찾은 북구 용봉동 공무원 학원가.

과거 공무원 학원이 밀집해 있던 곳이지만 대부분이 폐업을 하고 현재는 일부 학원만이 운영되고 있었다. 공시생들이 자주 찾던 식당·복사집 등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고 폐업한 학원 건물은 방치된 지 오래된 모습이었다. 인근 골목에 위치한 상가들의 공실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 학원가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공시생들이 확연히 줄어들어 매출과 상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았다.

10년째 복사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53)씨는 "공시생들이 많을 때는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 드물다"며 "코로나 이후에 전적으로 공무원 지방생들이 줄어든



공무원 지방생 급감으로 지역 내 공무원 학원과 인근 상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 학원가의 모습.

것 같다. 학원도 많이 문을 닫았고, 인근 상권 매출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8년째 식당을 하는 김모(66)씨는 "규모가 큰 고시학원들이 운영 중일때만 해도 학생들이 자주 밥을 먹으러 왔지만 요즘은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 너무 힘들다"면서 "대학교 방학 기간에는 손님이 아예 없는 수준이고 매출도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동구에 위치한 학원 밀집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거리에는 '임대문의'가 붙은 점포들이 수도룩했고, 공시생들의 식사부터 각종

생활 편의까지 책임졌던 고시학원 건물 1층 편의점마저도 문을 닫은 모습이였다. 같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0대)씨도 상권이 많이 침체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학원도 많이 사라지고 학생들도 많이 줄어 가게 매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적인 상권이 많이 죽어버렸다"고 말했다.

공무원 지방생 감소 추이는 연도별 경쟁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급 전국 지방공무원 경쟁률이 8.8대1로 지난해(10.4대1) 대비 하락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21년 10.3대1 △2022년 9.1대1 △2023년 10.7대1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의 9급 지방공무원 경쟁률 하락 폭은 더욱 크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9급 지방공무원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경쟁률은 △2023년 26.53대1 △2024년 25.65대1이었지만 △2025년 11.6대1로 반토막 났다. 전남의 경우도 △2023년 7.79대1 △2024년 7.25대1 △2025년 5.95대1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

미지가 강했던 공무원이 사실은 '박봉'에 '엄격한 조직문화'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 5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2074명을 대상으로 월급이 같은 경우 사기업과 공무원 중 어디를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에 사기업을 선택한 비중이 53%를 기록했다.

이들이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성장 가능성, 합격 불확실성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학원에 등록해 현장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줄어들면서 공무원 학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용봉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현장에 와서 실강을 듣는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다변화 됐고 모집인원도 줄어들었다"며 "수강생들이 없어서 학원 운영비도 나오지 않을 때도 허다하다. 다른 학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다"고 설명했다.

동구에서 20년째 고시학원을 운영하는 김현철(55) 원장은 "수강생들이 한참 많을 때는 한 강의실에 200명 정도 찾지만 지금은 20~30명 수준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면서 "학생들도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과 다르고 급여, 처우 등 여건이 타직장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인기가 떨어진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 신가동 중학교 신설 갈등 격화

시교육청 "학생 수 급감 불가피" 조합 "주민 기대·교육권 고려를" 공청회서 입장차 점점 못 찾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구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조합과 시교육청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신가동 주택재개발은 5000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교육청과 협의해 기존 신가초 재배치와 중학교 1곳 신설을 검토했으나 사업이 2029년으로 미뤄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같은 학군 내 중학교 입학 예정자가 오는 2026년 2351명에서 10년 뒤 70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시교육청은 독립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초·중 통합학교와 복합화 시설 구상도 주민 반대와 학급 기준 미달로 무산됐다.

조합과 광산구는 여전히 중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공문에서 "교육 여건을 기대하는 주민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시민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자"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인근 7학군에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 여유 교실도 30~100실에 달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학교를 원하는 대로 모두 세울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업 지연과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서도 주민·조합과 교육청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노병하 기자



'2025학년도 광주대학교 국토 순례 및 역사 유적탐방'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제주도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광주대학교 제공

광주대, 제주 85km 국토순례 및 역사 유적탐방

총장·학생·교직원 등 64명 공동체 의식, 역사 인식 다져

광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2025학년도 광주대학교 국토 순례 및 역사 유적탐방'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제주도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당초 70km를 목표로 했던 이번 대장정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약 85km에 달하는 제주 해안선을 완주하며 더욱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2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국토 순례 및 역사 탐방은 푸른 제주 바다와 독특한 지질 명소, 살아 숨 쉬는 자연 생태계를 직접 발로 걸으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공동 속식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끈끈한 유대감을 쌓는 데 중점을 뒀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일정에 직접 동

행해 도전의 의미와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무거운 가방을 손수 들며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올레길 7코스와 1코스, 성산일출봉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길을 서로 의지하며 장엄하게 펼쳐진 제주의 풍광을 즐기고 동료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특히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을 기리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완주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국토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끈끈한 유대감을 얻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협력의 가치를 깨달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안순우 총학생회장은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 등 만반의 준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를 마무리하게 돼 뿌듯하다"라며 "도전 정신과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광주대 건축학도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뜻깊은 협업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신축 설계 주제로 한 달여 연합 교육 문제해결에 대한 다각적 시각 접근 조형성·공간미·실용적 설계안 호평

건축학인증 받은 5년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광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건축학도들이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협업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 광주·여수 캠퍼스, 광주대 건축학과 3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2025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연합 최종 워크숍을 갖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신축 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연합 활동은 5월26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장애인 체험을 시작으로, 지난달 16일 여수 애향원 당사 및 중간발표를 거쳐 여성 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건축설계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건축법규 및 무장애(BF: Barrier-Free) 기준을 적용한 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날 최종 워크숍에는 장애인단체와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을 평가했다.

광주대학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전남대 광주캠퍼스는 조형성과 공간미를, 여수캠퍼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설계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연합 프로그램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와 (사)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

(사)실로암사람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축사사무소 맥스유·미가온·마중물·가원·더반·바오·유민·지밀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교육은 전남대학교 김현태 교수(건축 디자인학과), 한승훈 교수(건축도시설계 전공), 광주대학교 최선용 교수(건축학 전공)의 주도 아래 진행됐으며, 현장 지도에는 이순미, 김기준, 정영석, 유형두, 이수용, 김진우, 박종호, 김민호, 김미정 건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설계 수준을 한층 높였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김기준 회장은 "학교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와 후원 속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